

애덤 스미스의 행복이론: 행복경제학과 시민경제론의 기원*

김 광 수**

논문 초록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행복경제학에 관한 스미스의 선구적 견해를 총체적으로 조명한다. 행복이론과 행복경제학에 관한 학설사적인 주요 흐름을 우선 개관한 후,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을 상세히 고찰하며 그 이론의 핵심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예증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첫째, 행복은 본원적인 욕구의 충족에서 비롯되며, 또한 자유와 재산 같은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욕구의 충족이 객관적 기준(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도래한다. 셋째, 객관적 목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마음의 구조나 욕구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주관주의적 그리고 객관주의적 접근법이 모두 활용된다. 둘째,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서 상호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현대 시민경제론과 사회적 경제의 지성사적 기원을 형성한다.

핵심 주제어: 애덤 스미스, 행복경제학, 시민경제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3, B12, Z13

투고 일자: 2017. 11. 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12. 12. 게재 확정 일자: 2018. 1. 19.

* 본 초고에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glaskim@skku.edu

I. 서 론

행복경제학은 현대 경제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학문 조류에 해당한다. 1970년대 서구 사회에서 소위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 대두되면서 21세기로 이행하는 지점에서 행복경제학은 철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인류학 등의 융합적 영역과 결합되어 사회과학의 새로운 탐구 분야로 부상해왔다. 이러한 변화과정에는 행복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행복은 다면적, 다층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 행복이론이 확장되고 사회후생정책이 다변화된 점이 자리 잡고 있다.¹⁾ 행복경제학에는 행복의 문제를 개인의 주관적 쾌락이나 만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조류가 있고, 이러한 주관주의나 상대주의적 입장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객관주의적 행복론 전통을 채택하는 접근법이 있다. 전자의 접근법은 쾌락주의 및 공리주의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반면에, 후자의 접근법은 사회적 호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인본주의의 전통을 계승한다.

행복경제학의 역사적 기원을 회고할 때 『국부론』 및 『도덕감정론』의 저자이며 『법학강의』로 대학에서 강의한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스미스의 사상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에 불가결한 점은 분명하지만 궁극

1)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행복경제학자 이스털린은 30개국의 국가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과 물질적 부가 높아져도 행복의 확대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다(Easterlin, 1974 and 2004; 또한 Frank, 1999). 한편 1990년대 유엔개발계획(UNDP) 프로그램 하의 삶의 질 연구에서 역량(capabilities)의 복수성과 비환원성, 즉 삶의 질은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신체안전, 교육, 자유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Nussbaum and Sen, 1993).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행복경제학과 그 정책대안을 거론한 연구에 대해 김균(2013), 박종현(2016)을 보라.

2) 스미스는 도덕철학체계에서 분석과 종합(analysis and synthesis)의 방법론을 통해 일종의 사회과학 통합모형을 지향했다. 즉 그는 사회공동체,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의 세계에 관한 부분적 자립성과 그 상호작용의 효과를 융복합적으로 제시하려 했다. 그러므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서로 다른 인간관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던 ‘애덤 스미스 문제’(Adam Smith Problem)는 전혀 유효한 담론이 아니다(Macfie, 1967; Winch, 1978; Griswold, 1999; Rothschild, 2001; Otteson, 2002; Fleischacker, 2004; Hanley, 2009). 스미스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각 인문환경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응하는 인간 고유의 주요 본능들이 사회적 차원의 행동규범 및 덕목, 정치적 차원의 국가통치와 법제도, 경제 세계의 자유와 경쟁 등 인문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인공물과 교호작용을 하면서 사회공동체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김광수, 2015).

적으로 가장 상위의 행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인본주의에서처럼 사회 속에 공존하는 인간의 또 다른 주요 욕구와 동기는 상호성을 구현하고 관계 속의 행복을 성취하는 데에 있다. 사회적인 본능에 해당하는 동감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열정을 조율하며 상호배려와 호혜 및 선행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킬 때, 사회구성원들은 자아실현뿐 아니라 더 기쁨 있는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동감에 따른 상호성의 가치가 자기애의 추구 본능, 그리고 조건부적 헌신과 참여 동기 등과 함께 작용하면서 사회적 소통, 협력과 선행을 가져올 때 개개인은 더불어 잘살게 되고 행복감은 더 커진다.

본 연구는 스미스의 도덕철학 전반에 기초해서 행복경제학과 시민경제론의 기원에 대한 심층적이고 적실성 있는 연구를 지향한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사회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학설사적인 담론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제Ⅱ절에서 여러 행복이론과 행복경제학의 조류와 역사를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제Ⅲ절에서는 스미스의 행복개념 및 행복이론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제Ⅳ절에서는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주요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사례를 제시한다. 마지막 절은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그 기여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맺는다.

Ⅱ. 행복이론과 행복경제학

1. 행복이론의 여러 유형

역사적으로 제기된 행복에 관한 이론은 주관적 접근법과 객관적 접근법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행복을 주관적 심리상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론계열에는 쾌락주의와 욕망충족이론 등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이론이 존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체험이나 욕구와는 무관하게 행복의 객관적 기준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목록 이론이 있다(Parfit, 1984; Haybron, 2011).

첫째, 행복의 주관적 접근법에 속하는 쾌락주의(hedonism)는 당사자가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마음 내부에서 감지하는 주관적 느낌과 심리적 상태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마음 외부의 대상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는 삶의 질과는 무관하며, 행복은 오로지 개인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마음에서 느끼는 쾌락과 고통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쾌락주의에서 행복한 삶은 마음내의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쾌락주의는 고대의 에피쿠로스 학설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근대철학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이러한 전통을 계승했다.

둘째, 행복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론계열은 욕구충족이론(desire satisfaction theory)이다(Maslow, 1954; Diener, 1984).³⁾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주관적인 안녕감이지만, 직접적인 체험에 수반되는 쾌락과는 관계없이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욕구가 실제로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의존한다. 욕구충족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지닌 욕망이 진정으로 충족되는 경우에 쾌락이 발생하는 반면, 그것이 좌절되는 경우에는 고통이 초래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내부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망을 충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적 또는 상황적 조건에도 의존한다. 또한 이 욕구충족이론은(욕구에 의해 추동되는) 가치와 목표지향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주목해서 행복을 고찰하는 목표이론(goal theory) 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Austin and Vancouver, 1996).

한편, 사람이 체험하는 주관적 쾌락 및 욕구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은 만큼, 이러한 행복의 주관적 접근법과 관련되어 파생된 주요 심리학적 이론에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행복의 비교(comparison) 이론이다(Michalos, 1985). 비교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쾌락이나 욕망의 단순 충족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와 비교 평가하는 속성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여러 상태의 상호비교(예: 본인과 타인의 사회적 및 상대적 지위 비교, 과거와 현재/미래의 대비, 기대목표 성취 정도) 및 그 비교 결과(괴리 정도)에 근거해서 행복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상태의 상호비교 가운데 상향식 또는 하향식 비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기준점과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행복감은 더 낮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쾌락 및 욕구충족의 주관적 접근법과 관련해 주목되는 또 다른 이론은 쾌락 적응 및 대처 이론이다. 행복에 관한 쾌락적응(hedonic adaptation)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속적인 반복적 자극에 대해 곧 적응한 후 그것에 둔감하게 되거나 습관화를 하는 성향이 있다(Helson, 1964; Brickman and Campbell, 1971). 다시 말

3) 욕구충족이론 및 이와 연관된 파생 이론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의 소개로는 권석만 (2010)을 보라.

해서, 사람들은 쾌락철타퀴(hedonic treadmill)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욕망이 충족되면 그러한 상태에 금방 익숙해져서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체감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극이나 상황보다는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 더욱 의존적이 된다. 한편 쾌락적응 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와 능동적인 대처(coping) 자세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유리하다(Taylor and Brown, 1988). 그러므로 새로운 사건과 변화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재조정하면서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숙한 대처를 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설정 값 이론(set-point theory)도 이상과 같은 쾌락/욕구이론의 연장선상에서 기술될 수 있다(Kahneman, 1999). 이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욕구충족을 통한 행복에 이르는 설정 값(낙관적 기질, 자존감, 외향성, 자제력 등 다양한 개성)이 개별적으로 주어져 있다.⁴⁾ 따라서 고통 내지는 즐거움을 부여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고유한 마음의 기제(예: 최악의 불행회피에 대한 감사, 타인의 견해 참고나 수용, 사소한 선행의 성취 후 즐거움 등)가 작동되어 주어진 설정 값과 평형상태를 재귀적으로 지향한다. 물론 다양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일시적인 감정의 일탈과 동요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행복수준이 성립한다.

셋째, (이상의 주관주의적 심리상태와는 대조적으로) 객관적 목록 이론(objective list theory)은 행복에 관한 특정한 객관적 기준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경험에 따른 쾌락이나 욕망의 충족과는 무관하게, 좋은 행위 내지는 나쁜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즉 개인의 주관적 선호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조건(예: 지혜, 인애, 우정, 절제, 존엄성, 미 등)은 그 자체로 좋은 속성이며, 삶에 이러한 덕목이 구현되어 있으면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계열에서는 주관적인 쾌락과 만족감 자체보다는 이 같은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 욕구와 행위만이 좋은 삶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4) 마음의 평형수준과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려는 재귀상태는 고유한 설정 값을 지향한다.

2. 행복경제학의 철학적 전통

고대의 서양철학에서 행복에 대한 여러 접근방식이 존재했으며, 다양한 행복개념과 행복이론이 출현했다. 대별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사회적 관계 속의 행복) 전통과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전통으로 분류 가능하다. 후술하는 행복경제학의 조류는 이처럼 대조되는 두 철학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전통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속성을 지닌다(아리스토텔레스, 2011, p. 28). 인류의 삶은 본성상 고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속성을 지닌 타인과 더불어 공유될 때 고유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전통에서 에우다이모니아 또는 행복은 좋은 속성의 객관적 조건에 따라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며 잘 사는 것(human flourishing)을 의미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자기충족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했지만, 이러한 자족성이 다른 외부적 조건이 결여된 고립적이고 일차원적인 삶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의 욕구로부터 비롯되며, 따라서 행복의 주관적 측면인 쾌락이나 욕구만족은 삶의 기본적인 불가피한 단면이다(Nussbaum, 1992; Bloomfield, 2008; 편상범,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적 선”(external goods)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명확하게 인정한다. 즉 경제적 풍요, 정치권력, 외모, 출신, 행운 등의 외부적 요인이 비록 행복의 본질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필요조건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부적 선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은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혼동하는 것이다. 만일 행복이 욕구의 충족만을 의미한다면 이상과 같은 외부적인 선들이 결핍되는 경우에는 행복은 전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⁵⁾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외부적 선에 의한 물질적, 쾌락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은 불가피할지라도,

5) 다음 인용문을 보라. “행복한 사람도 인간이기에 외적인 유복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관조를 하기 위한 자족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관조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하고 음식이나 여타의 보살핌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비록 외적인 좋음 없이 지극히 행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행복하게 되기 위해 많고 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족이나 행위는 지나침에 의존하지 않으며, 비록 땅과 바다를 다 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귀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적당한 정도의 외적 조건들로부터도 탁월성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2011, p. 376).

그것은 사람의 내재적 잠재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한 ‘수단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념적 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욕구의 합리성, 즉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는 욕구의 충족만을 좋은 삶 그리고 행복과 연계시킨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을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아리스토텔레스, 2011, p. 46)이다. 이 맥락에서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이성의 원리에 순응하고 합리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즉 이성이 완전하게 발휘됨으로써 지성의 탁월성(지혜, 이해력) 및 품성의 탁월성(온화, 절제)이 실현될 때 행복은 진정으로 성취된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이성에 근거한 지적 탐구와 덕행을 통해 잠재적인 역량의 완전한 실현(탁월성)이 역동적으로 추구될 때 비로소 성취되는 정신적 활동이다. 따라서 좋은 삶 그리고 행복의 성취는 사회적 상호교류 속에서 공적인 과제에 올바른 지성을 활용하며 훌륭한 품성을 함양하고 덕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한편,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Epicurus)에게 행복은 좁게는 신체적, 육체적 쾌락이며, 넓게는 감각적, 감정적 즐거움 같은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 “우리에게 쾌락이란 신체 영역에 어떤 고통도 갖지 않는 동시에 정신적 영역에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에피쿠로스, 1997, p. 101). 그리고 사람은 욕구에 따라 사물을 추구하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본래 쾌락을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Annas, 1987; 류지한, 2007).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쾌락은 행복한 삶을 형성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나는 주장한다. 우리는 쾌락이 우리의 제1의 선천적 재산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욕구 추구하고 회피를 쾌락에 의해 조종하며 모든 재화를 쾌락의 기준으로 측정한다”(에피쿠로스, 1997, p. 99).

물론 이처럼 행복한 삶은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만, 맹목적 쾌락주의(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추구)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속적 또는 순간적 쾌락이나 고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비교 평가해서 판단하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하다(에피쿠로스, 1997, pp. 99-100).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과는 달리, 에피쿠로스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자연적 욕구나 정치적 동물의 속성이 사람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은 사회의 울타리 내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쾌락(정의, 우정)도 큰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이나 정의는 인간의 고상한 사회적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상호이익(개인적인 쾌락추구 및 이기심이 야기하는 사회공동체의 공멸 방지)을 위해 합의한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에피쿠로스, 1997, p. 45). 따라서 소극적 쾌락추구, 즉 최소한의 자연적이고 필수적 욕구(의식주 해결, 자유, 실천적 지혜와 우정)를 해결하는 데에 자족(自足)하면서, 고통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이성의 원리에 따라 이웃을 침해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행복 성취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한편 근현대의 시기에 들어 벤담의 공리주의가 이 같은 고대의 환원적 쾌락주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 사조가 된다(Scarre, 1994; Rosen, 2002). 에피쿠로스의 환원주의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강도, 지속성, 확실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리주의의 핵심적 교의는 그 기준에 따라 개개인의 고통과 쾌락을 단순 합산한 후, 이 공리(功利)를 기반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한 존 스튜어트 밀은 비록 후일 선호쾌락주의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쾌락주의와 공리주의의 기본 철학은 주류 경제학과 행복경제학의 일부 조류에 각인되어 왔다.⁶⁾

3. 행복경제학의 두 조류: 주관적 행복과 시민경제론

스미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행복은 부의 추구하고 병행하는 비중을 갖는 주제이거나 또는 그 목적이 될 정도의 주요 관심사를 구성했다(Bruni and Porta, 2005). 그런데 19세기 들어 행복에 관한 주제는 여러 근대 학문의 분화 추세 속에서 오로지 부에 관한 탐구에만 역량을 투입하던 경제학계의 관심사로부터 점차 멀어졌다. 그리고 이후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철학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은 물질적 풍요가 비례적으로 행복을 증진한다는 신념만을 꾸준히 제공했다. 한편 이스털린 역설은 데이터분석에 근거해 이러한 오랜 경제학계의 믿음에 의문을 표했으며, 이후 행복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행복경제학이 출현했다.

6) 선호쾌락주의는 쾌락과 고통에도 선호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견해다. 벤담은 쾌락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양적인 공리주의를 제창했지만, 밀은 『공리주의』 저술에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상위쾌락과 하위쾌락을 대비했다(Mill, 1863, p. 14).

먼저, 행복경제학의 한 갈래는 서양철학의 주관주의적 쾌락주의 접근법에 부응하는 흐름이다(Frey and Stutzer, 2002; Layard, 2005). 물론 행복경제학의 이러한 조류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스펙트럼은 주류 신고전파경제학이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복잡적이다. 공리주의 철학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합리성과 쾌락(효용) 추구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풍요로움에 비례해서 만족감이나 행복은 증가한다. 반면 이러한 부류의 행복경제학은 사람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주목하면서도, (물질적 풍요에 따른 쾌락의 체감 및 재귀경향을 의미하는) 쾌락적응 성향과 사회적 비교 성향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 이러한 주관주의 전통의 행복경제학은 소득과 물질적 요소 이외에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미묘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그리고 사회의 독립된 개인들이 한층 더 행복감을 누리도록 행동경제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부상한 또 다른 갈래의 행복경제학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객관주의적 행복주의 전통과 맥이 닿아 있다(Zamagni and Bruni, 2004; Gui and Sugden, 2005; Bruni, 2006). 주관주의 및 상대주의의 입장을 채택하는 전자의 관점과는 달리, 객관적 행복주의의 전통은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좋은 삶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안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철학적 계보에 기반하고 있는 행복경제학은 로빈슨 크루소 같은 고립되고 '무연고적인 자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공동선을 존중하는 인류를 상정하고 있다. 행복은 사회적 교류를 통해 성취되고 사회적 덕목의 체화가 이루어질 때 확대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므로 시장은 경제적 교환만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성의 원칙 아래 공동선이 추구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시장은 효율성 원리, 국가의 개입과 재분배는 정의(공평성) 원리,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 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시장, 국가, 사회공동체 등 세 차원의 상호협력과 각자의 중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Ⅲ.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행복

1. 스미스의 행복 개념: 행복의 심리학 및 철학

스미스의 사회철학에서 행복에 관한 논의는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를 구성한다.⁷⁾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인류의 행복”이 조물주 또는 자연이 의도한 본래적 목적이며, 이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인 관조는 인류 지성사를 통해 수행된 가장 숭고한 작업이었음을 지적한다(Smith, 1759, pp. 380, 521; 이하 한길사 번역본).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믿음에 관한 발언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은 행동하도록 창조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과 타인이 속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만들어졌다”(Smith, 1759, p. 275).

스미스에 따르면, 행복의 성취에는 마음의 평정이 선제적으로 요망되는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행복은 상대적으로 육체적 안락보다는 평정심(tranquility)이 있는 곳에 도래한다. “행복과 불행은 대체로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육체의 상태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거나 병들었는지, 또는 불구이거나 온전한지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Smith, 1776, p. 787).

그리고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외부 환경여건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즐거움이 생긴다면 행복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평정심과 인생을 즐기는 것에 있다. 평정심 없이는 즐거움(enjoyment)이 있을 수 없으며, 완전한 평정심이 있는 곳에 흥겹지 않을 수 없는 것이란 거의 없다”(Smith, 1759, p. 349). 이와 반대로 외부대상의 고통스런 자극에 따라서 마음에 증오와 노여움의 감정이 생

7) 행복에 관한 스미스의 사상은 최근 일부 연구에 의해 조명된 바 있다. Griswold (1999)에 따르면, 스미스는 대중들이 (자연의 속임수인) 물질 추구를 통해 행복을 열망하지만 실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 채 도덕감정의 타락만을 초래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본다. Long (2006)은 스미스의 행복 개념이 마음의 평정과 안정성에서 비롯되며 주관주의적 접근방식에 근거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Bréban (2014)은 쾌락적응이론에 근거해서 스미스의 행복이론을 해석한다. 반면 Dennis C. Rasmussen (2006)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많은 연구들과는 달리) 스미스에게 행복은 대체로 정치적 조건의 개선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에 반해 Uyl and Rasmussen (2010)은 스미스가 경제적 진보와 부유함이 수반하는 행복의 단면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본다. 한편 Hill (2016)은 현대 경제에 관한 여러 정책적 이슈를 스미스의 행복개념과 연결해서 분석하고 적용한다.

기면, 이것은 평정심을 훼손함으로써 행복을 저해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증오와 노여움은 선량한 사람의 행복에 최대의 독소가 된다. ... 이러한 열정들은 행복에 불가결하고 감사와 사랑이라는 대조적인 열정에 의해 가장 잘 촉진되는 마음의 침착함과 평정을 파괴한다”(Smith, 1759, p.145).

그렇다면 앞의 철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행복이론과 대비된 스미스의 이론적 관점은 무엇인가? 실상 스미스는 환원주의적 관점보다는 행복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언급한다. 첫째, 스미스는 행복의 주관적 측면인 쾌락과 욕구충족을 자연의 이치로 간주했다. 둘째, 행복이 욕구의 충족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로지 객관적 조건(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부합하는 욕구의 충족만이 진정한 행복을 증진한다. 셋째, 욕구충족이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그 욕구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과 정도에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⁸⁾ 이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1) 욕구충족과 쾌락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욕구충족이 이루어지면 행복의 주관적 상태인 쾌락과 즐거움이 발생한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본래 다양한 욕구를 지니며, 이것이 충족될 때 고유한 쾌락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행복의 법칙은 즉각적 생존에 불가결한 욕구 그리고 훨씬 더 숭고한 도덕적 행위의 욕구뿐만 아니라, 진리탐구의 욕구에도 적용된다(Smith, 1980, p.51; Smith, 1759, p.627 참고).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모든 욕구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자신의 안락과 평정심”(Smith, 1759, p.641) 같은 표현에서 입증된다. 반면에 가장 본원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 예컨대, “신뢰받기를 바라는 욕구”는 사회성의 근간을 이루며 사람의 가장 자연적인 소망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서 동료들에게 불신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고독과 공포감 그리고 “불행”을 느낀다(Smith, 1759, pp.715-16).

8) 예컨대, 앞서 소개된 심리학자인 매슬로(Abraham Maslow)는 욕구 5단계설에 의해 사람의 욕구에 위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은 우선 생존을 위한 생리적 욕구로부터 출발하여 생활상의 안전을 바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 인정 및 자존감을 갈망하는 욕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최종적으로는 자아존중 및 숭고한 도덕성의 구현을 통해 성취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은 스미스의 사상에서 행복이론의 본질로서 쾌락주의가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쾌락 자체가 중시된다고 해도, 순간적이고 감각적 쾌락은 행복의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한 반면에, 행복에 관한 마음의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최대의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인 육체적 감각은 우리의 행복 가운데 작은 부분을 구성할 뿐이다. 우리의 쾌락은 주로 과거의 즐거운 일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벌어질 훨씬 더 즐거운 일에 대한 예상에서 비롯되며, 마음은 언제나 그 즐거움 가운데 가장 최대의 몫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Smith, 1759, pp. 637-38). 뿐만 아니라, 순간적이고 감각적 쾌락의 추구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역설적 상황으로 종종 귀결되기도 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신체에서 유래한 욕구를 느낀 당사자에게 그 욕구가 충족되자마자 이를 유발한 대상은 유쾌함을 주기를 멈추며, 심지어 그 대상의 존재가 당사자에게 종종 불쾌함을 주기도 한다”(Smith, 1759, p. 125).

한편, 스미스에 따르면, 쾌락추구는 행복의 설정 값 이론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사람의 마음은 우연에 의한 행운과 불운 때문에 종래의 평형상태에서 종종 이탈하지만, 곧 그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한다. 스미스는 이 설정 값 이론에 근거해서 행복을 위한 평정심을 강조한 고대 스토아학과 철학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지적한다. 즉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평정의 상태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우연한 사고 때문에 의족에 의존해서 평생 불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도 오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행복을 느끼게 된다.

“진정한 행복의 측면에서 하나의 영속적인 상황과 다른 상황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모든 영구적 상황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짧게 걸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평정심의 상태로 돌아온다. 변형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그 일상적인 상태로 뒷걸음질 치며, 역경의 가운데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활기를 띠고 그 일상적인 상태로 고양된다.”(Smith, 1759, pp. 348-49)

또한 쾌락추구의 본성과 결부해서 행복의 비교이론이 시사되는 부분도 있다. 비교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어떤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행복이나 불행은 역사적 시간선상(과거/미래)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기대심리 그리고 위치의 부단한 비교성향, 즉 상대적 위치의 비교(괴리)를 통해 생성되거나 소멸하는 심리상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미스의 행복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더 나쁜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이전보다 형편이 더 열악한 상황으로 전락했을 때 받는 고통”이 존재한다(Smith, 1759, p. 476).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인 시기심과 질투심은 종종 자신 및 타인의 상황과 처지를 서로 비교하도록 자극하는 동기가 된다. 그러므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한 위치(지위)의 상대적 비교는 행복과 불행에 관한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스미스에 따르면, 시기심이 작동하면 주변 사람들의 호사와 기쁨에 흔쾌히 동감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다. 즉 이러한 특성의 심리는, 예컨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설명한다. 반대로 “시기심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희에 동감하는 우리의 성향이 비애에 동감하는 우리의 성향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Smith, 1759, pp. 158-59).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행운의 벼락부자에게 호평을 극도로 삼가는 반면에,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으로 청부(淸富)를 쌓은 사람의 행복에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더불어 축하한다.⁹⁾

(2) 객관적 목록 이론: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

사람의 자연적 욕구는 즉각적인 생존과 이익추구에 필요한 것으로부터 사회공동체 내의 타인을 배려하는 정의감, 인간애, 이타심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다(Smith, 1759, p. 585 참고). 그런데 이 같은 사람의 모든 욕구는 대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욕구충족에 따라서 주관적 쾌락은 동일한 강도로 행복감을 동반하는가?

『도덕감정론』 제 7부의 윤리학체계에 관한 논평에서 스미스는 고대 주요 철학자들이 지지한 개별 덕목(덕 윤리)과 자연적 욕구의 충족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9) 스미스에 따르면, “이상과 같은 급격한 운명의 변화는 사람의 행복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위대함을 향해 더욱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대중은 그가 일궈낸 승진의 모든 단계를 훨씬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승진했을 때 어떠한 과도한 환희도 느끼지 않고, 그에게 추월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심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그에게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망을 낳지도 않는다”(Smith, 1759, p. 152).

있음을 지적한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체계는 그러한 자연적 욕구의 제일차적인 대상들을 얻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에 덕성이 존재한다고 본 점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및 제논의 철학체계와 일치한다”(Smith, 1759, p. 645). 즉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적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덕목에 부합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수반한다고 인식했다. 스미스의 덕 윤리 분류기준에 따르면, 에피쿠로스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신중(prudence)을 권고한 것이고 이때 쾌락이 발생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객관적 기준은 이성(理性)에 따라 탁월한 행동(지혜 및 덕행)을 하는 것이며, 이처럼 중용을 발휘할 때 고유한 쾌락과 행복이 발생한다.¹⁰⁾

그렇다면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욕구충족이 덕목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동반하도록 만드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 스미스에 따르면, 동감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도덕 감정으로써 상상을 통한 입장의 전환을 통해서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가 느끼는 감정을 감지하고 공감하며 도덕적 판단에 이르는 감성적 본성이다. 동감의 본성은 개별 사안의 상황적 적정성, 즉 특정 여건에서 행위자의 감정과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그리고 동감은 제 3자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특정 현안을 살펴보고 평가하려는 마음의 성향, 즉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통상 이루어진다. 사정에 정통한 공정한 관찰자는 이성(理性)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한다. 그러므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과 승인은 욕구충족이 덕목이 될 수 있는가를 분별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이다. 공정한 관찰자의 감정의 수준과 정도는 사회의 집단적 동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욕구의 덕목으로의 전하기준이 되고 사회규범과 법제도에서 적정성의 준거가 된다(Campbell, 1971; Broadie, 2006; 김광수, 2012).¹¹⁾

한편, 어떤 욕구 기반 행위가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 및 도덕적 판단과 부합하는

10) 스미스의 덕 윤리 이론에 관한 논평으로 Hanley (2009; 2013), McCloskey (2008)를 보라. 한편 스미스의 덕 윤리 이론과 다양한 고대 철학(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의 연관성에 대해 Broadie (2010), Montes (2008), Leddy (2009)를 보라.

11) 스미스에 따르면, 도덕의 일반율이나 덕 윤리는 모두 공정한 관찰자의 개별 상황적 적정성에 관한 경험적 판단에서 유래한 것이다. “도덕의 일반원칙은 우리(공정한 관찰자)의 도덕적 능력, 즉 공로와 적정성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감각이 개별적인 여러 사례에 대해 승인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경험에 궁극적으로 기초하고 있다”(Smith, 1759, p. 368).

경우에는 관찰자와 행위자 사이에 감정의 교류가 성립함과 동시에 상호쾌감이 발생한다. 반대로 감정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공정한 관찰자는 그런 행위를 도덕적으로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상호 감정의 불일치에 고통을 느낀다.¹²⁾ 이처럼 동감이 대변하는 사회성의 본능이 충족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고유한 쾌락과 고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다음처럼 기술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로 우리 스스로가 칭찬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음을 최소한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 자신의 성격과 행위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가 되어야만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희망한 대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성격이나 행위를 우리가 단지 상상 속에서만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이러한 행복감과 안도감은 크게 확인된다.”(Smith, 1759, pp. 290-91)

이처럼 스미스는 (욕구충족과 쾌락을 단순히 행복의 원천으로 삼기보다는)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과 감정을 행위의 적정성의 준거점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모든 욕구의 충족이 이러한 객관적 목록기준과 부합한 경우에만 그 행위는 덕행이 되고 행복의 원천이 된다.

다음의 몇몇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중들은 부와 권력 자체가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상당한 행복을 동반할 것이라는 착각이나 혼동을 흔히 겪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예컨대, 생존과 안녕에 필수적인 물질재화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비교적 손쉽게 충족된다. 그러므로 “인간생활의 진정한 행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도 결코 열등하지 않다. 신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화라는 측면에서, 인생에서 서로 다른 신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동일

12) 동감의 본성이 거론되는 『도덕감정론』의 서두에서 이러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 역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즐거움 이외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해도 그런 사회적 본성이 발휘된다 (후술하는 관계제 논의 부분을 보라).

한 수준에 있다”(Smith, 1759, p. 419; pp. 350-51). 즉 생존과 안녕 같은 목적효용(end utility)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의 행복 수준이 가난한 사람보다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부자와 권세가는 단지 수단적 효용을 누리는데 필요한 행복의 수단을 타인보다 좀 더 많이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¹³⁾

두 번째,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 공유 및 진정한 행복의 관점에서 볼 때, 허영심에 의거한 지위의 과시 및 과도한 외부적 편의의 추구는 오히려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허영심이 충족시키는 “경망스러운 쾌락”은 마음의 평정을 결코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진정한 행복이 수반되지는 못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허영과 우월성이 주는 쾌락은 완전한 평정심, 즉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이며 토대를 이루는 것과 거의 양립하지 않는다”(Smith, 1759, p. 351; p. 151).

세 번째,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의 정도와 수준에 비례해서 자기만족과 행복의 정도는 더 커지고 행복감에 질적인 차이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성공과 실패에 관해서 그리고 번영과 역경에 직면해서 당사자가 표명하는 감정에 대해 공정한 관찰자가 동감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자기만족과 행복감은 더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마음 내의 수동적 감정에 관한 지배력(자기통제)과 적극적 의지의 활용, 또는 덕행의 여러 유형에 관해서도 이 같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즉, 인간 본성의 구조상 비교적 실행하거나 인내하기 어려운 사안과 감정을 섬세한 인간에 내지는 강한 의지력으로 실천했는가에 대해 공정한 관찰자는 동감에 의해 판단한다. 이때 본성의 구조 그리고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행복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며, 낮은 수준의 행복과 높은 수준의 행복이 차별화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관조하면서 내리는 자기승인의 정도는 그러한 자기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기통제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높거나 낮다. 자기

13) 스미스에 따르면, 부자와 권세가의 수단적 효용(means utility)은 다음과 같다. “관찰자가 부자와 권세가의 상황을 그런 감탄의 마음으로 판별하는가를 검토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상정되는 우월한 안락이나 즐거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안락이나 즐거움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인위적으로 우아한 고안품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관찰자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진정으로 더 행복하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으며, 그들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한다고 생각할 뿐이다”(Smith, 1759, p. 414).

통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정도의 자기승인만이 합당하다. ... 그러므로 불행 가운데 존재하는 훌륭한 행위에 대해 자연이 부여하는 보상은 그 훌륭한 행위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이 고통과 고난의 괴로움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훌륭한 행위의 정도에서 그런 것처럼, 그 고통과 고난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우리의 자연적 감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통제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극복의 기쁨과 자부심은 그만큼 더 커진다.”(Smith, 1759, pp. 345-46)

요약하면,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주관적 쾌락과 만족은 행복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행복의 수단과 본질의 측면에서 스미스의 이론은 행복 개념에 객관적인 목록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고, 객관주의적 행복주의를 근간으로 삼는다. 즉,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객관적 목록기준, 즉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과 승인이 주어지는 욕구 충족에 국한된다. 뿐만 아니라, 욕구충족에 관하여 공정한 관찰자가 동감하는 자기 통제(자제력)의 정도와 수준에 비례해서 행복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2. 행복의 수단과 본질: 하위 및 상위 행복의 원천

그렇다면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킴으로써 행복에 기여하는 외부적 대상과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째, 행복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인적 요건들이 있다. 스미스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 양심, 자족적인 재산, 명예 등이다. “건강하고 채무도 없으며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사람의 행복에 그 무엇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까?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식의 행운이 추가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mith, 1759, pp. 159-60).

둘째, 재산, 권력, 명예 등의 외부적인 조건과 편의보다 행복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스미스의 견해에 따르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의 교류와 교환이 창출해내는 행복의 크기와 비중은 이해타산에서 비롯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온화하고 섬세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조야한 인물조차도 이러한 여러 성향, 그 조화, 이 사회적 교류가 그로부터 얻어지리라 기대되는

모든 사소한 이익보다도 행복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Smith, 1759, p. 148). 다시 말해서,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관계적으로 부여하는 사회적 승인과 사랑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 “내가 확신하듯이 행복의 주요 부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유래한다”(Smith, 1759, p. 152).

셋째, 이처럼 행복을 좌우하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요인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공공정책적 요인들이 배제될 수는 없다.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자유와 재산은 쾌락과 행복의 수단이자 도구”(Smith, 1759, p. 640) 다. 문자발명 이후 역사발전단계에 걸쳐 국가조직의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조율되거나 규제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 개인들의 행복이나 불행은 국가가 규율하는 자유의 정도와 공공정책의 지향성에도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행복 이론의 관점에서 국가의 법제도와 공공정책의 내용은 외부 조건으로서 적지 않은 비중과 의미를 지닌다.

(1) 물질적 욕구 충족과 낮은 차원의 행복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의 다양한 본성 가운데 자기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성향”(Smith, 1759, p. 585; pp. 231-32) 이 가장 지배적이고 활동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자기에의 성향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생활개선욕구는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물질적인 토대를 갖추고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자극한다.¹⁴⁾

물질적 재산의 추구는 개인적 생존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자 행위라는 점은 자명하다. 빈곤과 물질적 결핍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리적 생존을 위태롭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빈곤은 주변 이웃들이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여건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회적 인정욕구를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일원으로서 개인의 행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¹⁵⁾ 그러므로 빈곤 극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더

14) 『국부론』에서 거론된 것처럼 이 생활개선욕구는 “어머니의 태내에서 나와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성향”으로서, 이로부터 절약이 비롯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축적이 도모된다 (Smith, 1776, p. 341).

15) 빈곤의 사회학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빈곤을 부끄러워한다. 그는 빈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야 밖으로 밀려나 있거나, 설령 주목받는다 해도 아마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함과 불행에 대해서는 동료감정을 거의 갖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불어 사는 선량한 시민공동체마저 적정하게 유지되거나 생존하기 어렵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다음처럼 언급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 전에, 우리 자신이 반드시 어느 정도 편안해져야만 한다. 만일 우리 자신의 곤궁이 우리를 매우 심하게 쪼들리게 하면 우리는 이웃의 곤궁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지 못한다. 모든 미개인은 그들 자신의 결핍과 필요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결핍과 필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Smith, 1759, p. 205).

그런데 자기에의 동기가 강하게 자극하는 물질적 재산의 추구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이러한 자기에의 행위가 타인의 설득과 공정한 교환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자기에의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 승인되는 하나의 덕목이 된다.¹⁶⁾ 반대로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비열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성 및 덕목을 훼손하고 불의를 저지른 행위가 된다.

만일 전자의 경로대로 물질적 부가 검약, 절제, 근면 등을 통해 추구되면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에 부합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에피쿠로스가 권고한 신중이라는 덕 윤리를 준수한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신중은 하나의 덕목으로서 “건강, 재산, 개인의 지위와 명성에 대한 고려, 즉 현세에서 개인의 안락과 행복이 주로 의존하게 되는 대상들에 대한 고려”(Smith, 1759, p. 476)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중에 근거한 행위는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 각자가 자신의 물질적 후생과 사회적 평판을 적정하고 합당하게 돌보는 경우에 발휘된다.

하지만 신중의 덕목에 의거한 행위는 자신의 행복에 관여할 뿐, 이웃들의 애정이나 존경을 받을 정도로 타인의 행복 증진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신중의 덕목에 기초한 자기에의 행동이 동반하는 행복은 고상하거나 높은 품

이유 때문에 그는 기분이 언짢음을 느낀다. 비록 무시되는 것과 승인받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무명의 암흑에 빠져 명예와 승인이 주는 환한 빛에서 벗어나 있는 이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 본성에서 가장 유쾌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가장 열렬한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이다”(Smith, 1759, p. 170).

16) 『국부론』에서 시장 교환행위의 기원이 되는 사람의 본성, 즉 “교환성향”(Smith, 1776, p. 25)은 더 포괄적인 “이성과 언어의 속성” 내지는 “설득성향”의 부분(Smith, 1978, p. 352; Smith, 1759, p. 715)으로 언급된다. 이때 설득성향은 언어능력과 보편적인 동감의 능력을 바탕으로 감정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하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교환성향 자체도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개인의 건강, 재산, 지위, 명예의 고려에만 지향되는 경우에 신중은 대단히 존경할 만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호감을 주거나 유쾌한 성품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덕성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이거나 가장 고상한 덕성으로는 결코 판단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차가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무언가 대단히 열렬한 애정이나 감탄을 받을 만큼의 자격은 없는 듯하다”(Smith, 1759, pp. 481-82).

(2) 자연적 정의(자유, 평등, 안전)와 행복

행복 또는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수단으로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제도 운영에 의존하는 ‘자유’와 ‘정의’가 거론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지배적인 자기애의 본능이 때로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성에는 타인의 행복도 중시하는 성향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회 속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면 주변의 공정한 관찰자는 이에 대한 분개심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분노에 공감한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행위, 우리에게 같거나 그 이상의 유용성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유용한 것을 빼앗는 행위, 또는 이런 식으로 타인을 희생시킴으로써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자연적인 선호에 탐닉하는 행위는 공정한 관찰자가 전혀 동조할 수 없는 행동이다”(Smith, 1759, p. 231). 그러므로 정의로운 성품의 소유자는 “심지어 우리 이웃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조차 어느 면에서도 그들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신성하고 종교적인 배려를 하는 행위”(Smith, 1759, p. 487)에 관심을 둔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부분적 관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 때문에 모든 사회공동체의 내부에서는 타인에 대한 침해를 삼가도록 요구하는 정의의 덕성이 권고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류사에서 정의의 덕목이 핵심적 가치로서 추천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의가 타인의 행복을 소망하는 본성의 반영이고 사회 존립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이의 자율적 질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준수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으로, 역사적으로 국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행복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상호 침해나 자유의 정도를 정의의 법제도로 규제하는 사회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왔다(Smith, 1759, p. 486; p. 723). 실상 국가는 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정의와 자유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여건을 좌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인과 사회의 행복수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¹⁷⁾

스미스에 따르면, 그 경로의 첫 번째는 (효용에 관한 고려에 앞서서) 공정한 관찰자의 자연적 정의감이 그 자체로 구현됨으로써 행복의 심리기제 상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완화되거나 제거되는 직접적 효과와 관련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정의와 자유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사건 관련 당사자의 분노의 감정과 불행감을 야기해서 행복을 훼손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

두 번째, 이러한 자연적 정의감의 구현은 이차적, 계기적으로 효용이나 유용성을 동반하는 여러 현상에 기여함으로써 행복증진의 여건을 촉진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공정한 법률의 지배와 사법권의 확립, 그리고 개인적 자유와 안전이 적절하게 보장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생활개선심리가 적절히 작동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 자원배분, 혁신과 기술발전에 의해 경제성장과 진보의 상태가 유지되어 물질적 부가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국가가 불의에 기초한 법제도를 집행하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 경제활동이 억제되고 경제의 정체나 퇴보의 가능성 및 불행의 수준이 증대한다.

행복의 수단으로서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정의체계에 관한 이러한 논점은 스미스의 『법학강의』의 핵심 주제이며, 행복경제학과 관련된 요지는 역사적인 노예제도에 관한 논평 가운데 대표적으로 반영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먼저 노예제는 합당한 국가 법체계의 원칙인 자연권(natural rights), 즉 생명 및 신체에 관한 자유의 보장에서 상당히 이탈함으로써 노동하는 다수의 불행을 야기했다. 노예제는 취득권(adventitious rights)에 해당하는 재산권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정의와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두 번째, 노예는 분배에서 배

17) 사회계약론에 비판적인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와 법의 역사적 기원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재산을 보호받고 그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서 비롯되었다(Smith, 1978, p. 404). 국가의 이런 속성 때문에 스미스는 국가권력의 오남용과 과도한 특허 남발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비판했다. 반면, 국가 내에서 정의에 의거한 권리의 보장은 정의의 가치의 최우선적인 구현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 공공복리 증진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됨으로써 행복에 기여한다(Haakonssen, 1981; Campbell, 1984; 김광수, 2009 및 2010). 한편 스미스의 성장모형에서 생활개선심리에 근거한 자원배분, 혁신 그리고 경제 진보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는 Rothschild and Sen(2006)을 참고하라.

제되었고 노예노동에는 폭력이 일상적으로 동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이 수반되었다. 『국부론』에서 다음처럼 기술된다.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경험은 노예에 의한 작업이 외관상 그들의 생활비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노동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믿는다. 아무런 재산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노동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Smith, 1776, p. 387).

이처럼 전근대사회의 노동법에 해당하는 노예법과 예농제에는 국가 법제도에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정의와 자유의 기본 원칙들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노예제는 행복에 기본적인 자연적 자유의 원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도 경제 진보와 부의 축적을 억제하는 결과를 수반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염두에 둔 스미스의 평가에 따르면, 전통사회의 여러 노동 관계법에서 구현된 국가법 원칙의 일탈은 생산자인 노예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인류 대부분의 행복과도 모순된 것이었다.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두 가지 최고의 축복인 부와 자유는 노예제가 허용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이 집단의 사람들을 상당히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노예제가 전반적으로 확립되는 경우에, 인간애를 지닌 사람은 이 두 가지 최고의 축복이 인류 대부분의 행복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같은 축복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해야 할 것 같다”(Smith, 1978, p. 185).

(3) 인애적 덕행 및 높은 차원의 행복

인간의 행복에 관한 물질세계의 역할은 육체적인 필요의 충족을 갈망하는 낮은 욕구단계에서 불가피하고, 신중의 덕목은 이러한 욕구를 합당하게 충족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개인적 행복을 도모한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고차원적인 행복의 원천은 아니다. 욕구의 설정 값 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여유롭고 풍족한 상황에 금방 적응하고 대처해서 원래 보유한 평균 정도의 행복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풍요로운 사회에서조차 물질적 욕구는 대체로 한계가 없으며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¹⁸⁾ 그렇지만 더 높은 수준의 덕행을

18) 『국부론』의 생활개선욕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완전한 욕구만족은 거의 성취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저축하도록 자극하는 원리는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욕망이며, 대체로

통해 타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행위는 이와 질적으로 차별화된 만족감을 준다 (Muller, 1993; Griswold, 1999; Herzog, 2011).

스미스에 따르면, 식량에 관한 욕구는 생물학적 구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지만, 종종 사회적으로 과시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편의품과 장식품에 대한 욕구(수단적 효용)는 무한하다. “모든 사람에게 식량에 대한 욕구는 위장의 좁은 용량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 의복, 마차, 가구라는 편의품 및 장식품에 대한 욕구는 무한하며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 같지 않다”(Smith, 1776, pp.180-81). 이처럼 필수품에 대한 욕구를 제외한 과시적 속성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정심과 행복은 완전하게 성취되기 어렵다(Smith, 1759, pp.411-19 참고).¹⁹⁾

또한 비교이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사회에서 한층 더 조장되는 욕구대상의 비교와 과대평가, 즉 탐욕과 허영에 근거한 과시는 개인과 사회의 불행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인생의 불행과 혼란 모두를 자초하는 커다란 원인은 하나의 영속적 상황과 다른 상황과의 차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탐욕은 빈곤과 부유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고, 야심은 사적 지위와 공적 지위의 차이를 과대평가하며, 허영은 무명과 광범위한 명성의 차이를 과대평가한다. 이처럼 정도를 지나친 열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제의 처지에서 비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리석게도 자신이 감탄하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회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경향을 종종 갖게 된다”(Smith, 1759, p.149).

정의에 근거한 정부의 통치제도와 정책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이러한 탐욕과 과시적 성향이 야기하는 침해를 강제적으로 교정하려는 시도로 출현했다. 그럼에도 행복 증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제도와 정책은 지혜와 덕목의 “불완전한 교정수단”, 즉 차선적인 방책에 불과하다. “과연 어떤 통치 제도가 지혜와 미덕이 널리 만연하는 것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겠는가? 모든 통치는 이러한 지혜와 미덕의 결핍에 대비한 불완전한 교정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

조용하고 냉정한 것이다. ... 아마 이 [삶과 죽음의] 두 가지 순간으로 구분되는 전체 기간을 통하여, 어느 누구든 어떤 종류의 변경이나 개선도 원하지 않을 만큼 자기의 처지에 완전하고 철저히 만족하는 것은 단 일순간도 없을 것이다”(Smith, 1776, p.341).

19) 서구사회에서 전개된 18세기 사치재 논쟁은 상업 활동의 확대와 더불어 진행된 과시적 욕구의 확산 및 전통적 덕목의 쇠퇴에 관한 우려에 근거했다(Pocock, 1975; Berry, 1994).

서 그 효용 때문에 시민정부에 귀속될 수 있는 아름다움은 그 무엇이든지 훨씬 더 큰 정도로 지혜와 미덕에 귀속되어야 함에 틀림없다”(Smith, 1759, p. 423).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의 행복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지혜의 발휘와 덕목의 실천임을 드러낸다. 국가가 강제하는 정의의 법제도는 탐욕과 과시로 발생하는 침해와 불행을 소극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수단에 불과하다.

반면, 도덕감각이 탁월한 사람은 주변 관찰자들의 외형적인 승인이나 국가의 강제적 수단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존감에 근거해서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praise-worthy) 자아실현의 자질을 스스로 배양하고자 한다(Smith, 1759, 제 3부). 특히 타인의 행복에 관계되는 인애 또는 자혜는 마음 구조상 진정한 탁월함을 요하며 사회적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최상의 덕목이다. 공동선을 위한 헌신, 선행, 공공정신, 관용, 인간애, 친절, 우정 같은 고급 덕목의 실천은 (신중의 자기행복과는 달리)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는 속성을 지닌다.²⁰⁾ 이 같은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고급덕목의 실천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행하고 고귀한 것이다. 동시에 이 고급덕목의 실천은 공정한 관찰자로부터 가장 강렬한 동감과 호감 그리고 상호적인 즐거움을 얻는다. 따라서 현인은 이러한 특성의 덕행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평정심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 이것은 (이해 타산에서 비롯되는 즐거움과는 달리) 인간 본연의 완전성을 실현함으로써 얻는 평안함과 자기만족, 그리고 관계 속의 행복감이다.²¹⁾

“미덕이 호감을 주고 칭찬받아 마땅한 대상이 되는 것은 미덕 그 자체가 애정과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애정과 감사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덕이 그런 호의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것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내면적 평온과 자기만족의 원천이 된다. ... 사랑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 미덕의 애호에 기초하고 있는 애착은 분명히 모든 애착들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영구적이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애착이다.”(Smith, 1759, pp. 289, 499-500)

20) 스미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한 관심은 정의와 자혜의 덕성을 권장한다. 이 미덕 가운데 정의는 우리가 타인에게 침해를 끼치지 않도록 억제하며, 자혜는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도록 고무시킨다”(Smith, 1759, p. 572).

21) 『도덕감정론』에 따르면, “우리 내면의 신의 대리인들(양심)은 ... 도덕적 원칙의 준수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의 평정, 흡족함, 자기만족을 가지고 보상한다”(Smith, 1759, p. 380).

IV. 스미스의 학설사적 공헌: 행복경제학과 시민경제론

1.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경제적 교환의 개념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화 및 서비스가 등가로 교환된다는 것을 상정한다. 시장가격은 경제적 가치의 계산에 근거한 등가교환을 현상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현대사회 내의 거래의 대부분은 외형상 익명성이 확대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교환이 가장 지배적인 교환의 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상당히 표준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적 거래는 이 같은 경제적 교환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관계적이고 불확정적 교환의 특성을 지닌 사회적 교환이 한층 더 일반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환은 오히려 사회적 교환의 특수한 사례 내지는 그 근사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실상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속성을 지니는 한,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와 교환조차 ‘사회적’ 가치평가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행해질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현대 시장자본주의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조직 내의 인력채용이나 협력 작업에서 사회적 교환의 비중과 역할은 상당하다. 기업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대부분은 건당 생산성에 따라 일회성 보수로 정산되는 분리된 작업이 아니라, 오랜 기간 팀원들에 의해 더불어 수행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동 작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조직 구성원들이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협조적 교환의 믿음과 신뢰의 형성, 호혜성과 신의성실의 가치는 팀과 조직의 운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생존 및 번영에 불가결한 요인이 된다.

사회적 교환에는 물질적 가치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관계적 인정, 승인, 권위 같은 비물질적 재화의 교환 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교환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양적 그리고 질적인 교환이 성사되기 때문에 보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22) 사회조직 심리학자인 Gouldner(1960)는 사회적 교환의 개념에 의해 사회적 관계 속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상호성이나 호혜성(reciprocity) 원리는 인류사에서 보편적인 일반규범의 하나이며,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회적 교환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로는 이성섭(2012)을 참고하라.

반면에, 그 교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의 유대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만일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신뢰체계 하에 비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상호협력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부세계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공유,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며, 따라서 특정 사회나 조직의 경쟁력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Foa, 1971; Griesinger, 1990).

『국부론』에서 다루지는 핵심적 교환의 틀은 경제적 교환과정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상 임금론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교환의 원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난다(김광수, 2016). 예를 들면, 보수의 결정요인 가운데 자산특수성이 거의 없는 직업에서는 경제적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명예가 부여되는 직업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평판 같은 사회학적 요소가 비교적 주된 역할을 한다.²³⁾ 스미스에 따르면, “명예는 모든 명예로운 직업의 보수의 큰 부분을 구성한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금전적 이득의 관점에서 명예로운 직업은 일반적으로 적정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Smith, 1776, p. 117). 사례를 보면, 근대 초기 서유럽에서 노동자 일반의 임금과 대비해서 교회 목사는 비교적 낮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과 명예 때문에 구직자들은 다른 직업보다 성직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Smith, 1776, p. 148).²⁴⁾

이처럼 임금론에서 스미스는 사회학적 요소를 경제적 요인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학적 요소는 객관적 목록 이론의 내용인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 이론에 토대를 둔 것이다. 왜냐 하면 스미스의 관점 속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평가, 존경과 명성 등은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평가와 승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대다수] 사람들의 성공은 거의 항상 그들의 이웃과 동료들의 호의와 호평에 의존한다. 따라서 꽤 균형 잡힌 행동을 하지 않고는 그것을 거의 얻어낼 수 없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예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속담은 이러한 상황에서

23) 현대거시조직이론의 선구자인 Williamson(1975)의 거래비용경제학에 따르면,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자산특수성이 낮아지면 그 대상 제품은 시장의 표준적 상품이 되고, 따라서 조직 내부거래보다는 시장을 통해 일반적으로 거래된다.

24) 또한 다음을 보라. “보통 수준에 도달하는 것마저 소수 인원에만 불과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소위 천재 또는 수재의 가장 결정적인 표식이다. 이러한 뛰어난 능력에 수반되는 대중의 존경은 항상 그들이 받는 보수의 일부를 이루며, 존경 정도의 고저에 따라 존경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다. 존경은 의사의 직업에서 보수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고, 법률가 직업에서는 한층 더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시와 철학에서는 거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Smith, 1776, p. 123).

거의 완전한 진리가 된다”(Smith, 1759, p.190; Smith, 1776, p.795 참고). 한편 신화의 토대가 되는 정직과 평판은 사회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상인과 일반 대중에게도 성공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고 분석된다.²⁵⁾ 이러한 분석은 시장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차원의 명성과 규범이 중첩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²⁶⁾

2. 관계재(關係財, relational goods)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경제적 교환은 사회적 관계의 요소가 철저히 배제되고 오로지 익명성과 비대인적(대물) 교환(impersonal exchange)의 형태로 재화와 서비스가 등가로 거래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교환에서는 물질적 가치의 교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대인관계) 자체가 교환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적 관계 속의 행복 전통에 주목해온 일단의 행복경제학자들은 최근 후자의 관점에서 관계재의 개념을 부각시켜왔다.

관계재는 사회적 교환이 포괄적으로 내포한 여러 특성 가운데 사회의 관계적 속성에 주목한 것이다. 관계재는 일반 경제재와 분리되어 생산되고 소비될 수도 있지만, 시장경제에서는 실제로 종종 다른 일반 경제재와 결합되어 소비되기도 한다.²⁷⁾ 브루니(Bruni)에 따르면, 관계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존재 의의를 발휘하며, 그 기본적인 특성은 대인관계 가운데 호혜성과 무상성에 있다(Bruni, 2013). 관계

25) 신뢰와 명성은 교환이익만을 고려하는 상인집단처럼 이해관계의 동기에 근거해서 형성될 수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상인은 자신의 평판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계약을 꼼꼼하게 지키려 한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20건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살짝 속이려는 시늉만으로도 계약을 망치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속이려는 시도를 해서 그리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서로 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약간씩 상대를 속이려는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판을 손상시켜 계약을 망치는 것보다 멋진 속임수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mith, 1978, pp.538-39).

26) Granovetter (1985)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개인주의적 방법론이 『국부론』에서 유래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스미스의 사회학적 관점을 철저히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27)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Uhlaner(1989)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무형의 단체소속감을 염두에 두고 관계재라고 명명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교류나 만남을 통해 소비재가 관계적으로 활용(예: 야구경기 공동응원과 연대감)되거나 자본재로부터 관계적 생산물이 창출(예: 자본재 운영 관련자 사이의 지역적인 노하우 공유)된다면, “관계적 소비재” 그리고 “관계적 자본재” 같은 용어로 확장이 가능하다(Gui and Stanca, 2010).

재는 사회적 교류를 도모하는 사람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창출된 관계 속에서 향유된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추구 동기와 대비되는)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상호배려, 신뢰, 우정, 친절, 사랑(애정) 등은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향유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호혜적이고 무상성을 띤다(Zamagni and Bruni, 2004). 따라서 관계재는 사회적 교류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교류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공감, 상호성, 신뢰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개념 틀에서 보면, 『국부론』에서 분업과 자기에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가치결정에 관한 논의는 익명성과 비대인적인 경제적 교환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운영원리를 분석하는 『도덕감정론』에서는 사회적 교환의 핵심이 되는 상호성의 원리가 동시에 거론된다. 이 선행적인 윤리학 저술에 따르면, 인간 본성상 자기보존과 자기에의 욕구가 지배적 동기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와 별개로 사회의 보존, 질서 유지, 번영을 지향하는 근원적 애착성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 대하여 자연적 애정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결합은 설령 자기 자신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편익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결합 그 자체를 위해서 보존되기를 희망한다”(Smith, 1759, p. 88).

스미스에 따르면, 이처럼 사회의 보존과 애정의 원천이 되는 자연적 감정이 바로 동감의 본성이다. 또한 이 사회적 본능인 동감이 수반되는 행위에는 결과적으로 감정의 상호일치에 따른 즐거움과 행복, 즉 “상호동감의 즐거움”(Smith, 1759, p. 97)이 발생한다.²⁸⁾ 공정한 관찰자와 행위당사자의 동감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상호동감의 즐거움은 사람들의 가장 지배적인 욕구인 자기에와 이해타산적인 계산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결코 아니다. 상호동감의 즐거움 (또는 동감 거부

28) 스미스에 따르면 “대화과 사교의 크나큰 즐거움은 감정과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그리 많은 악기처럼 서로 어울려서 박자가 맞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감정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이 없으면 이처럼 가장 기쁨을 주는 조화는 달성될 수 없다”(Smith, 1759, p. 717). 한편 현대 연구자인 Foa (1971)는 교환내용의 특성과 교환관계에 관한 규칙성을 찾고자 시도했다. 여기서 다양한 재화는 사랑(친절, 애정, 위안), 지위(존경, 명예), 정보(사실, 의견, 충고), 금전, 제품, 용역의 6가지 일반 범주로 나뉜다. 흥미로운 점은 애정의 교환에서 플러스섬(plus-sum)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애정의 교환에서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표현되었을 때 애정의 양이 동일하거나 축소되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다.

시의 고통)은 타인의 감정과 관찰자의 감정과의 일치 또는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고유한 쾌락이나 고통이며, 사회성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동감의 원인이 무엇이든 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이 유발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리 마음의 모든 정서에 대한 동료감정을 보는 것만큼 우리를 한층 더 기쁘게 하는 어떤 것도 없다. 또한 그 반대의 외형만큼 우리를 한층 더 놀라게 하는 것도 없다. ...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기쁨과 고통은 모두 언제나 순간적으로 그리고 흔히 사소한 경우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어느 감정도 자기애를 고려한 것에서 도출될 수 없음이 분명한 듯하다. ... 타인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의 이러한 일치가 기쁨을 낳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고 그 일치의 결여가 고통을 낳는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Smith, 1759, pp. 97-98)

이상의 인용문은 동감의 본능이 작동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는 무상성과 호혜성이 개입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상호소통과 공감을 통한 고유한 행복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동감에 따른 감정의 상호일치는 사랑과 환희 같은 사회적 열정을 더 활기치게 할 뿐 아니라, 비애와 고통 같은 불행의 감각을 훨씬 더 완화시킴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추가적인 행복감을 부여한다(Smith, 1759, pp. 97-102).

또한 사회 내의 상호성의 동기와 행동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이며 매우 사소한 일상에도 개입하고 있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절실한 상호간의 친절이 필요하도록 사람을 형성한 자연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 친절의 특별한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 친절은 친절의 어버이다”(Smith, 1759, pp. 500-01).

물론 사회 내에서 개인에 의한 상호성과 무상성의 동기와 행동이 존재한다는 점이 자기애에 기초한 등가물의 교환과 영리성(교환적 정의, 효율성), 그리고 조건부적인 헌신(분배적 정의, 형평성)을 배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처럼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 문화적 요소들과 사회적 상호성의 가치가 중첩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친화성이 강화되는 경우에 개인과 사회의 행복은 더 탁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스미스에 따르면, 상인단체처럼 주로 자기애와 효용의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소사회공동체도 비록 “덜 행복하고 덜 유쾌”하지만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와 대비해서 동감과 호혜의 원리에 의해 움

직이는 사회는 고급 덕목의 실천에 근거하기 때문에 번영과 품격 있는 행복을 누리는 데에 한층 더 탁월하다.

“사회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해진 사람은 본래 그가 타고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호 침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필요한 도움이 상호성을 기초로 하여 애정, 우정, 존경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에 그 사회는 번영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모든 서로 다른 구성원들은 애정과 애착의 유쾌한 유대로 함께 연결되어 있고, 말하자면 상호 선행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중심으로 이끌리게 된다.”(Smith, 1759, p. 85)

3. 시민인본주의: 행복과 시민경제

최근 경제학계 및 사회과학계에서 새롭게 부상한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앞서 거론된 사회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성 그리고 관계속의 행복을 인간의 주요한 욕구와 동기로 보는 점에 있다. 시민경제론의 패러다임의 전통은 17세기 중반 서구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시기보다 다소 앞선 중세 말기의 시민인본주의(civil humanism)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인본주의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계승된 시민 덕성에 관한 정치사회적 담론과 중세 기독교(수도원)의 문화적 토양, 그리고 중세 말기에 확장한 시장경제사상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Zamagni and Bruni, 2004).²⁹⁾

시민경제론의 관점에서 시민적 덕성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사회는 물질적 부와 자유 그리고 행복의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최적상태를 구현하기 어렵다. 시민경제론

29) 시민인본주의에 관한 자마그니-브루니(Zamagni and Bruni)의 경제사상사적 관점은 스미스 연구사의 관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이들은 1765년 시민경제론을 저술한 나폴리의 경제학자 제노베시(Antonio Genovesi)의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계승한 시민적 인본주의로, 이후 『국부론』을 출간한 후발주자 스미스의 이론을 개인주의적 인본주의 전통에 닿아있는 것으로 거론한다. 하지만 옥스퍼드에서 귀향한 스미스는 1748-51년에 에든버러대학에서 시민사회에 관한 특강을 했고, 이후 글래스고대학에서 도덕철학 교수로서 1764년 초까지 사회공동체-법과 정치-경제로 구성되는 세 가지 차원의 인문환경 통합모형을 통해 시민사회의 속성을 역사적으로 조망했다. (각주 30에서 요약되듯이) 『도덕감정론』(1759)과 『국부론』(1776)의 출판 및 당시 대학강의록인 『법학강의』는 시민사회론과 관련된 주제에서 체계적으로 구상된 것이며, 인문모형의 완전성과 체계성을 상대적으로 결여한 제노베시와는 대조된다. 한편 스미스의 시민사회론에 관한 최근의 해설로 Boyd(2013)를 보라.

은 윤리학과 결합하여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의 획일적이고 환원론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다(Bruyn, 2000; Goodwin, 2009). 시민경제론의 사회성과 상호성의 가치는 관계성 회복을 통해 자원간의 상호결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를 보정함으로써 내발적(內發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직성, 진실성, 신뢰성, 무상성 같은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상호성의 관계적 성격이 강화되면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타인의 신뢰를 얻거나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데도 유익하다. 따라서 시민의 좋은 삶과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적 교환과 관계재의 의미가 강조되며, 시민 덕성의 보완적 육성과 구현이 주요한 실천과제가 된다.

그런데 시민경제론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해석상 명백한 주의가 요망되는 지점이 있다. 시민경제론에서 개별 거래에 동반되는 상호성의 행동은 자발적 헌신과 양도를 내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순수한 이타주의나 무한한 선행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호성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부 내지는 수혜가 아니라, 비록 즉각적이지는 않아도 다른 구성원에 의한 사회적 교환 및 호혜의 기대에 근거한 쌍방향의 헌신과 양도의 특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시민경제론은 순수한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인 행복만을 규범적으로 완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시민경제론에서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본성상 개인들이 지배적으로 표출하는 욕구와 행동, 즉 이해관계 지향적이며 조건부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중첩적으로’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의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가치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과 영리지향적인 경쟁체제, 그리고 공공이익을 지향하는 국가에 의한 정의와 사회적 서비스(재분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성의 가치는 이러한 두 주요 영역의 운동과 중첩적으로 결합해서 상승작용과 선순환을 도모하는 공적이고 관계적인 원리다. 이러한 상호성의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모델은 전적으로 이해타산에만 몰입하는 시장적 인간형을 초월할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 즉 시장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에 토대를 둔 시민경제 부문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대 시민경제론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는 시민인본주의 전통과 맥락이 닿아있음과 동시에, 시민경제론을 위한 하나의 훌륭한 벤치마크모델에 해당한다.³⁰⁾ 먼저 서구사상사에서 전통사회의 사상과 대비했을 때 스미스의 독창성은 개인의 자기애와 자유에 기초한 경제의 세계(시장의 효율성과 물질생산력)가 사

회공동체 및 국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제를 상세하게 조명한 점에 있음은 분명하다.³¹⁾

이와 동시에, 스미스의 도덕철학에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행위는 특정 개인의 행복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목표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첫째 기존 해석에서 정의의 가치에 토대를 둔 정치와

30)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예컨대, Skinner (1996), Evensky (2005), Kim (2014) 등은 윤리학, 법과 정치, 경제학 등 개별 분과를 하나의 체계 내지는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 인식한다. 한편, 김광수 (2015) 에 따르면,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상과 같은 3가지 차원인 사회공동체, 국가 그리고 경제 세계의 요인들이 개별 차원에서 정태적 양태를 보이거나 또는 일방향식 인과관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의 인문환경 존재론 모형을 요약한 아래 <Table 1>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시민인본주의 도덕철학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은 각각 상대적 자립성을 부분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Table 1> Adam Smith's ontological model of human society

social structure	nature of levels	driving forces	main values	literature
level 1: society	spontaneous order	sympathy	reciprocity, cooperation, reputation	TMS
↓ ↑				
level 2: the state	enforced order	justice, utility	liberty, security, equality	LJ
↓ ↑				
level 3: economy	competitive order	self-interest	efficiency, prosperity	WN

31) 스미스의 경제철학에 대한 오독(誤讀) 과 고정관념은 그의 사상 전반을 극단으로 왜곡하고 학문지체(學問遲滯) 현상을 낳는 데에 기여해왔다(김광수, 2000, pp. 164-65 참고). 역사적으로 근대유럽의 초기 경제정책체계였던 중상주의는 화폐(금은)의 축적을 목표로 상공업자 친화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전개했다. 스미스는 중상주의가 부국강병의 목적에 오히려 상반되는 정책체계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자연적 정의와 자유의 중요성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했다(최근의 연구로는 Ortman and Walraevens, 2015 참고). 그런데 이처럼 번영, 정의 그리고 행복의 관점에서 ‘자유’ 친화적인 정책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한 점이 마치 무개입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지상주의 및 부르주아 경제학을 지향한 것으로 그릇되게 해석되면서 그의 도덕철학체계, 복잡다층적인 인문세계 모형과 시민인본주의 사회철학은 철저히 경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사회 전체의 행복을 지향하는 행위는 특정 개인의 행복을 목표로 한 행위보다 더 상위의 덕성이다. “어느 거대한 공동체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어느 보다 소규모 조직체의 행복만을 목표로 한 행위와 비교해서 더욱 확대된 자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인 만큼, 또한 그러한 행위는 비례적으로 한층 더 덕망이 있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정 가운데 가장 덕망 있는 성정은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을 그 목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반해서 어느 모로든 덕성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내포한 성정 가운데 최소한도의 덕성만을 포용하고 있는 성정은

법의 세계의 중요성이 심히 간과되어 왔다(Winch, 1978; Haakonssen, 1981). 행복의 토대로서 변형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스미스의 핵심 정치철학은 자연적 정의의 틀에서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국부론』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다음의 발언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계층의 최고도의 변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하는 매우 단순한 비밀이다”(Smith, 1776, p. 669). 스미스의 인문세계 모형에서 비록 행복을 위한 차선택일지라도 정의의 제도는 사회의 존립과 변형을 위한 핵심적 주춧돌이다. 즉 국가는 개인들의 과도한 이기심과 탐욕, 즉 자기애의 타락과 변질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침해를 정의의 관점에서 확고하게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의 존립과 변형은 불가하다. 『국부론』에서 거론된 개인들의 분업 및 자기애의 성향은 정의와 자유가 준수되는 조건 하에서 비로소 물질추구와 경제적 세계의 운동과 변화에 매우 호의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사회공동체의 세계는 스미스의 인문세계 모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론적 토대를 이루는 차원으로 상정되고 있다.³³⁾ 여기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의 메커니즘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사회적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율하고 통제함으로써 도덕성과 시민 덕목을 권장하고 육성하는 원천이 된다. 사회적 세계가 상호성의 가치에 따라 수행하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통합적 특성이 바로 시민인본주의의 전통과 맞아맞아있는 지점이 된다. 사회적 세계는 사익(私益)과 경쟁에 의존하는 경제의 세계, 그리고 정의와 공리에 기반한 정치와 법의 세계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이러한 두 차원과 중첩적으로

특정한 아들, 형제, 친구와 같은 어느 개인의 행복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어떠한 행복도 목적으로 삼지 않은 성정이다”(Smith, 1759, p. 651).

- 33) 1970년대 전후 스미스에 관한 주요 연구는 윤리학적 토대에 관한 선행적 이해 없이는 법학이나 경제학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Macfie(1967), Haakonssen(1981), Werhane(1991), Griswold(1999), Evenski(2005), 김광수(2015)를 보라. 사회적 관계와 그 단면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목적을 지니는 『도덕감정론』의 도덕의 세계는 국가 및 경제의 세계의 운동에 관한 지배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능력들이 현세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은 믿어 의심될 수 없다. 도덕적 능력들은 이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증표들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이 증표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최고의 판정인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 열정, 욕구를 감독하도록, 이러한 감정들이 각각 어느 정도 만족되거나 억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에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도덕적 능력은 이러한 점에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간 본성의 다른 능력이나 욕구와 결코 동일한 수준에 있지 않다”(Smith, 1759, p. 165).

작용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선도한다.

4. 예증 사례: 노동자의 행복을 위한 시민경제

마지막으로, 이 같은 시민인본주의 틀에 근거해서 시민덕성과 행복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정책의 일부가 제안되었음을 예증할 것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국가의 존재 목적은 시민의 행복 증진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에 부응해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모든 구조는 오로지 그 체계 아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시키는 경향에 비례해서만 평가된다. 이것이 정부 조직의 유일한 용도이며 목적이다”(Smith, 1759, p. 420) 그러므로 스미스가 언급한 다양한 정부정책은 당시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행복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행복의 원천에 해당하는 내용(기초생활 소득확보, 정의와 자유의 보장, 시민 덕성의 육성과 사회적 관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이미 기술했듯이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재산과 자유”는 행복의 기본적 외부수단인 만큼, 사회공동체와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기초생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구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제성장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개선’ 욕구는 일상의 주어진 즐거움에 자족하기 보다는 미래의 후생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 일반은 통상적으로 행복에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은 한도를 넘어서서 경제적 부의 추구에 대해서 훨씬 더 열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경제 환경(정체 또는 후퇴상태) 가운데 경제 진보의 상태는 국민 다수(노동자)에게 가장 큰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수반한다.³⁴⁾

“노동에 대한 후한 보수는 증가하고 있는 부의 결과이면서도 증가하는 인구의 원인이다. 노동의 후한 보수를 불평하는 것은 가장 큰 사회적 변영의 필연적인 결과와 원인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 빈민의 상태가 가장 행복

34) 18세기 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국부론』의 목적을 다음처럼 언급한 바 있다. “애덤 스미스의 공인된 목적은 국부의 성격과 여러 원인을 조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때로 그것과 중첩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더 흥미로운 또 하나의 목적은 국가의 행복 또는 사회의 하층계급의 행복과 안락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에 관한 탐구라는 점이다”(Malthus, 1798, p. 96).

하고 가장 안락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가 이미 부를 충분히 획득했을 때보다는 사회가 더 큰 부를 획득하기 위해 나아가는 진보상태에 있을 때다. 노동빈민의 상태는 사회가 정체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어렵고, 사회가 쇠퇴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비참하다. 진보상태는 사실상 사회의 모든 계급에게 즐겁고 활기찬 상태고, 정체상태는 활기가 없으며, 쇠퇴상태는 우울한 상태다.”(Smith, 1776, p. 99)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국가를 구성하는 성원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며, 이들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대체로 부합한다. “임금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회의 이익과 엄격하게 연관되어 있다”(Smith, 1776, p. 266). 스미스 이전의 지배적인 학설인 중상주의의 교의는 노동자의 빈곤과 무지를 부국강병을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제시했다.³⁵⁾ 이와 대조적으로 스미스의 행복경제학에서 문명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경제 진보와 우호적인 노동소득분배분의 보장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다수의 노동자가 기초소득의 보장 없이 절대빈곤을 겪는 국가는 번영하는 사회도 아니고 행복한 사회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화단계에 진입한 국가의 정의(正義)는 (생물학적 최저임금을 넘어서서) 노동자가 총생산물 가운데 상당히 우호적인 임금과 소득분배분(分配分)을 획득하는가에 의존한다.

“어느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결핍한 경우는 결코 번영하거나 행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생산물 가운데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꽤 좋은 몫을 분배받는 것이 형평(equity)에 부합된다.”(Smith, 1776, p. 96)³⁶⁾

그러므로 시민인본주의 기조 하에서 국가는 노동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

35) 18세기 초 중상주의자인 맨더빌에 따르면 부국강병을 위해 노동자의 빈곤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부유할 때 게으름을 피우는 반면, 빈곤할 때 근면해진다는 것이다. 『꿀벌의 우화』에서 맨더빌은 “다수 대중은 가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지해야 한다”(Mandeville, 1714, p. 288)고 주장하며, 노동자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36)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정의는 응분의 성과에 대한 비례적인 균분에 있으며, 형평은 그 보완적 원리로서 제시된다. 정의를 규정하는 법제도는 그 일반성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형평의 역할은 특수한 상황적 조건이 반영됨으로써 비례적인 균분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적절한 교정을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및 스콜라철학의 전통 속에서 스미스의 정의 개념에 관한 논의로는 Young and Gordon (1996)을 보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심각한’ 부의 집중화(양극화)는 한 나라의 경제 및 다수 구성원의 행복에 단연코 유해하다. 그렇지만 전통사회로부터 도약이 이루어지는 초기 발전단계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부의 양극화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예견된다면 관습적으로 계승된 일정한 부의 불평등은 사회에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때 제조품의 수요 진작을 통해 산업의 자연적 진보(농업-제조업-상업 발전)가 촉진됨으로써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태적이든 동태적이든 부의 불평등이 일정 한계선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오히려 제조업의 육성 및 상업의 확대가 저지된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결국 고용이 줄고 사회발전은 억제된다. 스미스에 따르면, “부자와 하층민 사이에 존재하는 재산상의 격차가 점차 축소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거론될 것처럼, 국민 가운데 월등히 부유한 사람은 국가 공동체에 진정으로 유해하다”(Smith, 1978, p. 196).³⁷⁾

둘째, 중상주의의 특정 산업우대 정책과 세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 같은 부의 집중화 억제 내지는 노동자의 소득불평등 완화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스미스는 근대 유럽의 유력 상공업자가 종종 정치권력과 거래하면서 그들을 위한 호의적인 산업지원 정책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비판한다.³⁸⁾ 또한 필수품 과세의 역진성에 관한 비판적 의견, 그리고 도로통행세(사치품 운송마차 중과세)에 찬성하는 견해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다. 전자에 관해서 스미스는 필수품에 과세하면 저소득자의 소득에 관한 세율이 높아져서 소득분배차원에서 역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다음처럼 기술한다. “이러한 모든 최악의 과세(임대료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과세)에 대한 주된 반대는 그것이 야기하는 불공평

37) 『법학강의』에 나오는 이러한 발언의 배경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Smith, 1978, pp. 194-98). 부의 불평등분배가 야기해 온 일반 대중의 생존의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주요 사회적 관심사였으며, 농경사회인 고대 초기 로마공화국에서 토지분배법(agrarian law)은 그 해결방안으로 나왔다. 스미스에 따르면, 토지분배법은 평등의 관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빈곤 탈출과 사회 안전보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에 해당한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농경단계의 ‘근소한’ 부의 불평등은 제조업과 무역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해 생계확보와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38)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의 중상주의체계에 의해 주로 장려되는 것은 부자와 유력자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이다. 가난하거나 궁핍한 사람의 편익을 위해 영위되는 산업은 너무 빈번히 무시되거나 억압되고 있다”(Smith, 1776, p. 644).

성, 즉 가장 나쁜 유형의 불공평성(inequality)에 있다. 그러한 모든 조세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Smith, 1776, p. 846).³⁹⁾

셋째, 다수 노동자의 번영 및 행복의 도모라는 관점에서 국가 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평가도 제기된다.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자유와 정의의 보장이 행복의 기본 수단인 만큼, 국가가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여부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⁴⁰⁾ 이런 맥락에서 스미스는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을 “공공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혁명”(Smith, 1776, p. 422)으로 지칭했다. 명예혁명 이후 근대 영국에서 사회정의의 기치 하에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 인신보호법 시행, 재산권제도의 개선, 법률에 의거한 통치 등 정치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법제도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경시되었던 개인의 자유 및 안전 보장을 강화했으며, 당시 여타 유럽국가보다 앞서서 경제개혁을 이루고 영국의 진보와 번영을 이루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Smith, 1776, p. 540 참고).

반면, 당시 노동 관련법에 해당하는 도제법과 정주법은 도제의 수(數)를 제한하거나 이주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처럼 18세기의 노동 관련법에서 정의와 자유의 원칙이 훼손되면서 농업 및 공업 부문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계, 자유, 안전, 평등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정주법이 당시 영국 노동자에게 끼친 피해와 불행에 대해 다음처럼 지적한다.

“어떤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그가 거주하려는 교구로부터 추방하는 것은 자연적 자유 및 정의의 명백한 침해다. 하지만, 자유를 매우 열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일반인들처럼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잉글랜드의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1세기 이상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러한 억

39) 도로통행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이 있다. “이륜짐마차, 사륜짐마차 등 필수품 운송마차에 대한 통행료보다 사륜대형마차, 역전마차 등 사치품 운송마차에 대한 통행세가 무게 대비 더욱 높게 책정된다면, 부자들의 나태와 허영심으로 인하여 중량이 있는 상품들이 전국 각 지방으로 보다 저렴하게 운송됨으로써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빈민들의 구제에 기여하게 된다”(Smith, 1776, p. 725).

40) 스미스의 사상에서 근대 상업사회가 한층 진보한 문명사회로 평가된 이유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권력분산, 즉 자유 및 안전의 보장, 예속관계로부터의 탈피, 삼권분립 등에 있다(Berry, 1989; Salter, 1992; Rothschild, 2001; Rasmussen, 2006).

압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 잉글랜드에서 나이 40세의 가난한 사람치고 자기 일생의 어느 부분에서 이처럼 잘못 입안된 정주법에 의해 가장 비참하게 억압당했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한다.”(Smith, 1776, p. 157)

이러한 분석과 비판은 18세기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혁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Smith, 1776, p. 470 참고). 노동자 다수의 비참한 억압과 불행이 언급된 만큼, 이러한 정책제안은 행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시민인본주의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민적 삶의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다. 『국부론』에서 거론되듯이 경제성장의 사회적 순기능은 높은 임금에 의해 노동자의 의식주 및 건강에 관한 자연적 욕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활개선에 관한 “즐거운 희망”(안정적 건강관리 및 안락하고 풍요로운 만년에 대한 기대)이 고취되는 것이다(Smith, 1776, p. 99 참고). 하지만 동시에 예견된 산업혁명의 도래와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사회적 결핍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런 관점에서 스미스는 경제성장의 사회적 역기능, 즉 과시적 소비, 탐욕, 고립, 소외, 연대감 희석, 자아실현 방해, 미덕과 가족제도의 와해 등 시민적 덕목의 훼손과 불행이 조장되는 사회학적 측면에도 크게 주목했다(Alvey, 2001; Tegos, 2013).

따라서 시민적 삶의 사회적 안정성 확보, 즉 사회적 교류 및 시민 품성과 덕목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및 문화예술에 관한 국가의 지원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우선, 스미스는 민주주의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유익한 시민 정신과 덕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중 및 고등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기를 촉구한다. 인적자본의 육성 효과와는 별개로, 대중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사색적 지혜와 민도를 높이고 인간성(도덕성) 회복이나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비록 국가가 서민의 교육에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상 국가는 그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지한 국가에서 종종 가장 무서운 무질서를 낳는 광신과 미신에 덜 빠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받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보다 항상 더욱 정중하며 질서를 잘 지킨다”(Smith,

1776, p. 788).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국가지원은 제조업과 도시화에서 비롯된 대중의 고립과 반사회성, 그리고 이와 연관된 종교적 광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일차적으로 사회의 중류 이상 지도자계층이 대학교육에 의해 철학과 과학을 제대로 소화함으로써 무지, 반사회성, 광신으로부터 해방되면, 하류계층도 이를 추종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덕성을 배양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교류활동 촉진을 위한 인프라의 확대도 중요하다. 예술과 연극상연, 전시회, 대중오락 등 지역 문화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점증하는 대중의 소외와 반사회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역 문화 활동에서 고취되는 기분전환과 즐거움은 광신의 토대가 되는 우울하고 침울한 사회분위기를 손쉽게 쇄신한다.⁴¹⁾

V. 결론 및 시사점

현대 행복경제학은 행복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복에 관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융합과학의 특성을 지닌다. 행복이론은 크게 쾌락주의, 욕구충족이론, 객관적 목록이론으로 구분된다. 물론 행복에 관한 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41) 스미스에 따르면, “첫 번째 구체책은 국가가 중류 또는 중류 이상의 지위와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 사이에 거의 보편화시킬 수 있는 과학과 철학의 연구이다. 이는 교사들을 태만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봉급을 주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도의 난해한 학문에까지도 모든 사람이 자유직업에 종사할 허가를 받기 전에 또는 무급이나 유급의 명예관직의 후보자가 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된 검정시험에 합격하는 방식에 의해서다. ... 과학(철학)은 종교적인 광신과 미신의 독소를 제거하는 위대한 해독제이다. 그리고 상류층 모두가 이런 독소로부터 안전하게 될 경우, 하류층은 그 독소에 크게 노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구체책은 흥겨운 대중오락을 빈번히 즐기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추문이나 무례함 없이 그림, 시, 음악, 무용에 의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연극상연과 전시회에 의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분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장려함으로써, 즉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거의 언제나 대중적인 미신과 광기의 온상이 되는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쉽게 소산시킬 수 있다. 대중오락은 대중을 열광시키는 모든 광신적 선동자에게는 언제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다. 그러한 대중오락이 고취시키는 흥겨움과 좋은 분위기는 이 선동자들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거나 또는 그들이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대중의 마음상태와 전혀 양립할 수 없다. 게다가 연극상연은 광신적 선동자들의 수작을 공개하여 종종 대중의 조소를 부르거나, 때때로 비난의 대상이 되므로 다른 모든 오락보다도 특히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되었다”(Smith, 1776, pp. 796-97).

쾌락 및 욕구충족이론과 병행해서 파생이론인 비교이론, 적응이론, 설정 값 이론 등이 행복현상의 설명에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수 행복이론의 철학적 전통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객관적 행복주의와 에피쿠로스의 주관적 쾌락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견해도 주관적 쾌락주의와 객관적 행복주의로 대별되는 두 유형의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첫째, 스미스는 행복의 주관적 측면인 쾌락과 욕구충족을 사람의 본성으로 인식했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이를 자극하는 본원적인 욕구로부터 비롯되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경우에는 고유한 쾌락이 뒤 따른다. 따라서 행복은 욕구충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여건이나 대상(재산, 정의, 자유 등)에도 의존한다.

둘째, 모든 욕구의 충족이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 목록기준에 조응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행복은 도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에 따른 탁월성이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는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부가 그 객관적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덕목의 실천은 그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행복의 성취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셋째, 욕구 충족이 객관적 목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욕구의 특성(마음의 구조)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 내지는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욕구의 속성에 따라 자기통제(자제력)의 정도가 다른 만큼, 공정한 관찰자는 이를 반영해서 비교적 수월한 신중의 하위 덕목으로부터 매우 숭고한 인애, 선행 등의 상위 덕목까지 위계적 승인을 한다. 고급덕목의 실천은 공정한 관찰자와의 확대된 동감과 상호쾌감 때문에 질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행복개념과 이론은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와 연관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정의와 자유의 원리에 근거한 국가의 공공정책은 그 자체로 사회존립과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의 세계의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이나 불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신중의 덕목실천에 기초한 물질적 풍요는 개인의 본원적인 욕구충족에는 기여하지만, 타인의 행복과 결부되는 한 낮은 수준의 행복을 동반한다. 마지막으로, 상호배려, 호혜, 협력, 애정, 우정, 선행 등 탁월한 덕목이 실천되는 경우에 상급의 자기승인과 자아실현이 성취되고 진정한 행복은 도래한다.

한편 역사 속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원 사이에 상호인과적인 관계가 작용하

여 행복 증진을 위한 조건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신중의 덕목은 물질적 풍요와 경제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람과 세계의 소통과 설득의 폭을 확대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상호배려 및 인간애를 증진한다. 그리고 상급의 덕목의 실천, 사회적 관계의 상호성과 신뢰의 강화는 거래비용의 축소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돈독한 사회적 관계 속의 애착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낳는다.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미스는 행복에 관하여 주관주의적 그리고 객관주의적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행복과 관련된 스미스의 사상은 주로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조망되었지만, 그 본질적 측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객관적 행복주의 전통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둘째, 스미스의 인문환경의 존재론 및 시민인본주의에 근거한 도덕철학과 행복이론은 행복의 다차원성, 위계성, 중첩성, 성장성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세계에서 드러난 자유와 경쟁의 일방적 유효성을 핵심 사상으로 본 전통적 해석과 대비했을 때, 행복을 위한 사회적 교환 및 관계재의 중요성, 그리고 세 가지 존재론적 차원의 상호협력 작용이 중시된 점은 유의미하다. 셋째, 이러한 융합적 조망과 사례분석은 스미스의 행복과 경제학에 관한 관점이 시민인본주의 전통에 따른 현대 시민경제론의 지성사적 기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미스의 행복이론에서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수 대중의 행복을 위한 일정한 경제진보가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스미스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호적인 노동소득분배분이 확보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그리고 다수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여건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사회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관한 과도한 탐닉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의 즐거움의 확장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는 시민적 삶의 사회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류활동 촉진 등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품성과 덕목을 고양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다.

■ 참 고 문 헌

1. 권석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제36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pp. 121-152.
(Translated in English) Kwon, Seok-Man,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Happiness from the Viewpoint of Psychology,” *A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Vol. 36, 2010, pp. 121-152.
2. 김광수, “고전학파의 공공정책과 교육,” 『경제학연구』, 제48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0, pp. 163-191.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 on Public Policy and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Vol. 48, No. 4, 2000, pp. 163-191.
3. ———, “애덤 스미스와 법과 경제: 정의와 효율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7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09, pp. 77-107.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s Law and Economics with Reference to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Vol. 57, No. 1, 2009, pp. 77-107.
4. ———, “애덤 스미스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 『경제학연구』, 제58집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10, pp. 5-36.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 on Law and Economics of Labor Issue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Vol. 58, No. 2, 2010, pp. 5-36.
5. ———, “애덤 스미스의 법과 경제: 행동경제학-행동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12, pp. 25-54.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s Law and Economics: A Behavioral Law Approach,” *Kukje Kyungje Yongu*, Vol. 18, No. 4, 2012, pp. 25-54.
6. ———, 『애덤 스미스: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한길사, 2015.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 Justice Leads to Prosperity*, Seoul: Hangilsa Publishing, 2015.
7. ———, “애덤 스미스의 조직이론과 조직의 경제학,” 『국제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16, pp. 1-34.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s View of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al Economics,” *Kukje Kyungje Yongu*, Vol. 22, No. 2, 2016, pp. 1-34.
8. 김 규, “이스털린 역설과 관계제,” 『사회경제평론』, 제42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pp. 19-48.
(Translated in English) Kim, Kyun, “Easterlin Paradox and Relational Good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42, 2013, pp. 19-48.
9. 류지한, “고대의 쾌락주의,” 『철학논총』, 제50집, 새한철학회, 2007, pp. 91-111.
(Translated in English) Lyou, Ji-Han, “Hedonism in the Ancient Greece,”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50, 2007, pp. 91-111.
10. 박중현, “행복경제학과 좋은 삶 전통: 쾌락과 가치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보』, 제23권 제1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pp. 79-102.

- (Translated in English) Park, JongHyun, "Happiness Economics and Eudaimonic View of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23, No. 1. 2016, pp.79-102.
11.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외 옮김, 도서출판 길, 2011.
(Translated in English)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Korean Translation by Kang, Sangjin, et. al., Seoul: Gill Publishing, 2011.
 12. 에피쿠로스, 『쾌락의 철학』, 조정옥 엮음, 동천사, 1997.
(Translated in English) Epicurus, *The Works of Epicurus*, Korean Translation by Cho, Jungok, Seoul: Dongchun Publishing, 1997.
 13. 이상섭, "시장교환, 관계적 교환, 시장기능의 제도적 형식," 『제도와 경제』, 제6권 제1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pp.61-82.
(Translated in English) Lee, SungSup, "Market Exchange, Relational Exchange, and Institutional Dimension of Market Operation,"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Vol. 6, No. 1. 2012, pp.61-82.
 14. 편상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행복, 욕구 만족, 그리고 합리성," 『철학사상』, 제58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5, pp.95-126.
(Translated in English) Pyeon, Sangbeom, "Happiness, Desire-satisfaction, and Rationality in Aristotle's Ethics,"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Vol. 58, 2015, pp.95-126.
 15. Alvey, J. E., "Moral Education As a Means to Human Perfection and Social Order,"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Vol. 14, 2001, pp.1-18.
 16. Annas, J., "Epicurus on Pleasure and Happiness," *Philosophical Topics*, Vol. 15, 1987, pp.5-21.
 17. Austin, J. T. and J. F. Vancouver, "Goal Construction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0, 1996, pp.338-375.
 18. Berry, C. J., "Adam Smith: Commerce, Liberty and Modernity," in P. Gilmour (ed.), *Philosophers of the Enlightenmen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9, pp.113-132.
 19. Berry, C., *The Idea of Lux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0. Bloomfield, P. (ed.), *Morality and Self-intere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1. Boyd, R., "Adam Smith on Civility and Civil Society," in C. Berry, M. P. Paganelli and C. Smith (eds.), *The Oxford Handbook of Adam Sm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443-463.
 22. Bréban, L., "Smith on Happiness: Towards a Gravitation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21, 2014, pp.359-391.
 23. Brickman, P. and D. T. Campbell,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M. H. Appley (ed.), *Adaptation Level Theory: A Symposium*,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pp.287-304.
 24. Broadie, A., "Sympathy and the Impartial Spectator," in K. Haakonsse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5. _____, "Aristotle, Adam Smith and the Virtue of Propriety," *Journal of Scottish Philosophy*, Vol. 8, 2010. pp.79-89.

26. Bruni, L., *Civil Happiness: Economics and Human Flourish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2006.
27. _____, "Relational Goods: A New Tool for an Old Issue," *ECO*, Vol. 3, 2013, pp. 173-178.
28. Bruni, L. and P. L.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강태훈 옮김. 『행복의 역설』, 경문사, 2015).
29. Bruyn, S. T., *A Civil Econom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30. Campbell, T. D., *Adam Smith's Science of Morals*, London: Allen and Unwin, 1971.
31. _____, "Adam Smith and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in V. Hope (ed.), *Philosophers of the Scottish Enlightenmen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84, pp. 133-156.
32.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1984, pp. 542-575.
33. Easterlin, R. E.,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 David and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 89-125.
34. _____, "The Economics of Happiness," *Daedalus*, Vol. 133, 2004, pp. 26-33.
35. Evensky, J., *Adam Smith's Mor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6. Fleischacker, S., *On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A Philosophical Compan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37. Foa, U. G., "Interpersonal and Economic Resources," *Science*, Vol. 171, 1971, pp. 345-351.
38. Frank, R., *Luxury Fever*,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39. Frey, B. and A. Stutzer, *Happiness and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40. Goodwin, N., "Civil Economy and Civilized Economics: Essenti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ume II, edited by K. S. Bawa and R. Seidler, Oxford: Eolss Publishers, 2009, pp. 200-229.
41. Gouldner, A. W., "The Norm of Reciproc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5, 1960, pp. 161-178.
42. Granovetter, M.,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 1985, pp. 481-510.
43. Griesinger, D., "The Human Side of Economic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5, 1990, pp. 478-499.
44. Griswold, C. L., *Adam Smith and the Virtues of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45. Gui, B. and R. Sugden (eds.), *Economics and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46. Gui, B. and L. Stanca, "Happiness and Relational Goods: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Economic Sphere,"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Vol. 57, 2010,

- pp. 105-118.
47. Haakonssen, K., *The Science of a Legislat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48. Hanley, R. P., *Adam Smith and the Character of Virt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49. ———, “Adam Smith and Virtue,” in C. Berry, M.P. Paganelli and C. Smith (eds.), *The Oxford Handbook of Adam Sm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219-240.
 50. Haybron, D., “Happines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N. Zalta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1/entries/happiness/>>, 2011.
 51. Helson, H., *Adaptation-Level Theory*, Oxford: Harper and Row, 1964.
 52. Herzog, L., “Higher and Lower Virtues in Commercial Society: Adam Smith and Motivation Crowding Out,”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Vol. 10, 2011, pp. 370-395.
 53. Hill, J. E., *Adam Smith’s Equal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54. Kahneman, D., “Objective Happiness,” in D. Kahneman, E. Diener and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pp. 3-25.
 55. Kim, K., “Adam Smith’s and Douglass North’s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73, 2014, pp. 3-31.
 56. Layard, R.,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Books, 2005.
 57. Leddy, N., “Adam Smith’s Critique of Enlightenment Epicureanism,” in N. Leddy and A. Livshitz (eds.), *Epicurus in the Enlightenment*, Oxford: Voltaire Foundation, 2009, pp. 183-205.
 58. Long, D., “Adam Smith’s Politics,” in K. Haakonsse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288-318.
 59. Macfie, A. L., *The Individual in Society: Papers on Adam Smith*, London: Allen and Unwin, 1967.
 60. Malthus, T.,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London: Macmillan, 1798 [1998].
 61. McCloskey, D., “Adam Smith, the Last of the Former Virtue Ethicist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40, 2008, pp. 43-71.
 62. Mandeville, B., *The Fable of the Bees*, 2 vols., edited by F. B. Kaye. Liberty Classics, 1714 [1924].
 63. Maslow, A.,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 1954.
 64. Michalos, A. C.,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6, 1985, pp. 347-413.
 65. Mill, J. S., *Utilitarianism*, London: Parker, Son & Bourn, West Strand, 1863.
 66. Montes, L., “Adam Smith as an Eclectic Stoic,” *The Adam Smith Review*, Vol. 4, 2008, pp. 30-56.

67. Muller, J. Z., *Adam Smith in His Time and Ours*, New York: Free Press, 1993.
68. Nussbaum, M., "Human Functioning and Social Justice: in Defense of Aristotelian Essentialism," *Political Theory*, Vol. 20, 1992, pp.202-246.
69. Nussbaum, M. and A. Sen,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1993.
70. Otteson, J. R., *Adam Smith's Marketplace of Lif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71. Parfit, D.,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72. Pocock, J. G. A., *The Machiavellian Mo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73. Ortmann, A. and B. Walraevens, "The Rhetorical Structure of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UNSW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2015.
74. Rasmussen, D. C., "Does Bettering Our Condition Really Make Us Better Off? Adam Smith on Progress and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2006, pp. 309-318.
75. Rosen, F., "Utility and Justice: Epicurus and the Epicurean Tradition," *Polis*, Vol. 19, 2002, pp.93-107.
76. Rothschild, E., *Economic Sentiments: Adam Smith, Condorcet, and the Enlighte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77. Rothschild, E. and A. Sen, "Adam Smith's Economics," in K. Haakonsse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dam Sm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319-365.
78. Salter, J., "Adam Smith on Feudalism, Commerce and Slaver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Vol. 13, 1992, pp.219-241.
79. Scarre, G., "Epicurus as a Forerunner of Utilitarianism," *Utilitas*, Vol. 6, 1994, pp.219-231.
80. Skinner, A. S., *A System of Social Science*,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6.
81.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ited by D. Raphael and A. L. Macfie. Oxford: Clarendon Press, 1759 [1976]. (김광수 옮김. 『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82.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R. Campbell and A. S. Skinner. Oxford: Clarendon Press, 1776 [1976].
83. ———, *Lectures on Jurisprudence*, edit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Oxford: Clarendon Press, 1978.
84. ———,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edited by W. P. D. Wightman, Oxford: Clarendon Press, 1980.
85. Taylor, S. E. and J. D. Brown,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1988, pp.193-210.
86. Tegos, S., "Adam Smith: Theorist of Corruption," in C. Berry, M. P. Paganelli and C. Smith (eds.), *The Oxford Handbook of Adam Sm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353-371.
87. Uhlener, C. J., "Relational Goods and Participation: Incorporating Sociability into a Theory

- of Rational Action,” *Public Choice*, Vol. 62, 1989, pp.253-285.
88. Uyl, D. J. and D. B. Rasmussen, “Adam Smith: Economic Happiness,” *Reason Papers*, Vol. 32, 2010, pp.29-40.
89. Werhane, P. H., *Adam Smith and His Legacy for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90. Williamson, O. E., *Markets and Hierarchies*, New York: Free Press, 1975.
91. Winch, D., *Adam Smith'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92. Young, J. and B. Gordon, “Distributive Justice as a Normative Criterion in Adam Smith's Political Econom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28, 1996, pp.1-25.
93. Zamagni, S. and L. Bruni, *Economia Civile*, Bologna: Mulino, 2004. (제현주 옮김,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2015).

Adam Smith's Theory of Happiness: An Origin of Happiness Economics and Civil Economy*

Kwangsue Kim**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ddress Adam Smith's frontier view of happiness and economics, which has recently been raised since the so-called Easterlin's Paradox. At the outset, we take a historical look at several major theories of happiness in philosophy and psychology, from which two theories of happiness economics have arisen. Next we examine, in detail, Smith's approach to happiness in light of his moral philosophy, and cast some light on his opinion that true happiness consists in agreeing with sympathetic sentiments of impartial spectators. We then suggest that, while in his moral philosophy a hybrid (subjective and objective) approach to happiness is taken as a whole, his basic theory of happiness is largely in line with the tradition of Aristotelian objective list theory. We conclude that Smith's view of happiness in moral philosophy is a precursor of modern civil humanism and happiness economics, in that the value of reciprocity among agents is regarded, above all, to be important in socio-economic transactions.

Key Words: Adam Smith, happiness economics, civil economy

JEL Classification: A13, B12, Z13

Received: Nov. 7, 2017. Revised: Dec. 12, 2017. Accepted: Jan. 19, 2018.

* The author would gratefully appreciate some comments of three referees for an improvement of this pape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Phone: +82-2-760-0437, e-mail: glaskim@skku.edu